

##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중용』 독서와 그 의미

—‘용(勇)’의 주목 양상을 중심으로\*

강진선\*\*

<차 례>

1. 서론
2.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중용』 독서 과정
3. 이덕무의 ‘용(勇)’ 주목 양상
  - 1) 이덕무의 『중용』 독서 동기
  - 2) 당시 이덕무의 상황
  - 3) ‘용(勇)’ 주목 양상과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덕무의 <관독일기>를 대상으로 “용(勇)”을 중심으로 한 『중용』 독서 양상과 그 의미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덕무는 주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중용』의 내용을 이해했지만, 그 읽기에서는 “용(勇)”에 대한 이덕무의 개인적인 견해가 드러난다. 곧 자로문강장의 강(強), 나아가 삼달덕의 “용(勇)”에 주목한 것이다. “용(勇)”의 주목은 당시 그의 개인사와 관련된다. 이덕무는 가정의 우환, 허약한 심신 등의 문제로 번민하였고, 『중용』 독서를 통해 굳건한 정신을 얻기

\* 이 논문은 2018년 8월 10일 우리한문학회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 토론자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 세밀하게 읽고 질정하여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물론 필자는 경학 연구자가 아닌데다가, 토론 시 지적된 바와 같이 경서로서 『중용』의 해석을 이덕무의 개인사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하지만 <관독일기>의 문예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덕무의 『중용』 독서 양상을 주요한 축으로 삼아 읽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부득이 이와 같은 논지를 고수하게 되었다. 다만 이덕무 문학의 독법에 있어 한 가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적어 소망할 따름이다.

\*\* 한양대 국문과 박사과정

를 바랐다. 그에 의하면 “용(勇)”은 중용을 찾도록 돕는 약이자 부족한 자가 힘써 정진하는 자세와 관련된다. <관독일기>를 통해서 『중용』의 수용 양상 뿐 아니라 당시 이덕무의 일상적인 서정을 재구할 수 있다. <관독일기>는 날짜별 구성을 토대로 미세한 연보를 구성하여, 이를 이덕무의 문예적 성과에 접목하여 해석하게끔 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24세 이덕무의 일상적인 생각, “용(勇)”에 대한 그의 정도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 이덕무, 관독일기, 용(勇), 중용, 자로문강장, 독서

## 1. 서론

이 논문은 형암(炯菴)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관독일기(觀讀日記)><sup>1)</sup>를 대상으로 하여 이덕무의 『중용』 독서 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과 의미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독일기>는 이덕무가 24세이던 갑신년(1764) 가을에 약 3개월간 저술한 『중용』 독서 일기이다.<sup>2)</sup> 이덕무는 <관독일기>의 서문에서 과문 공부에 치중하여 옛 글을 읽는 데 소홀하였던 것을 반성했다.<sup>3)</sup> 또한 허목의 『기언』, 정충신의 『북천일록』 및 이

1) 버클리대 소장 『청장관전서』 권6 내 『영처잡고』에 수록된 것을 선택하였다. 해석본으로는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청장관전서』 2, 서울, 1997, 45~83을 참고하였다.

2) 본래 9월 重陽日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일기를 기록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11월 1일 기사 일부를 마지막으로 이하의 기록은 빠져 있다. 하지만 『중용』의 진도로만 본다면 11월 1일에 『중용』의 끝 장까지 모두 완독하였다. 『중용』의 진도의 상세는 2장에서 살피려 한다. 李德懋, 『甲申除夕記』, 『靑莊館全書』 卷3: “夫觀讀日記者, 記日之觀且讀焉者也. 讀焉而有得, 則敢以說陳之, 又暇而旁觀它書, 有論贊之者矣. 蓋觀讀日記, 起于甲申九月九日, 止于十一月三十日, 凡三卷.”

3) 李德懋, 『觀讀日記』, 『嬰處雜稿』, 『靑莊館全書』 卷6: “余今年爲舉業所縛纏, 雖有古人詩書, 不暇觀且讀焉. 重陽日, 存心文字裏, 掃拂卷帙, 洗筆硯, 于以讀中庸, 有暇旁觀古今子集詩文. 自此日爲首, 凡有得逐日書之, 以就靜養規模. 甲申重陽, 散士書.”

몽양·이반룡의 시문 등을 함께 읽어, 엮어읽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관독일기>는 독서론과 관련하여 이덕무 독서의 실제 사례로서 주목되었다. 박문열은 이덕무의 독서관에 주목하여, 그가 독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인물로서 독서의 생활화와 습관화를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덕무의 새로운 독서관이 적용된 사례로 <관독일기>를 소개하고, 그 독서 진도의 상세와 일기의 전체 내용을 상술하였다.<sup>4)</sup> 남정희는 조선 후기 경화 사대부의 독서 양상이 경서 독서라는 전통적 교양과 명·청 문집류를 비롯한 새로운 도서의 섭렵이라는 취미가 공존하는 양상을 띠었다고 하였다.<sup>5)</sup> 이때 전통적 경전 독서의 한 사례로 <관독일기>를 제시하며, 이 시기 지식인들의 가치판단의 준거가 『중용』을 비롯한 경전의 권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관독일기>가 독서론 혹은 독서 문화와 관련하여 언급되어 왔지만, 이 자료는 온전히 이덕무의 독서 양상과 방법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또한 독서 내용을 메모한 차록(箭錄)만도 아니다. 오히려 <관독일기>의 날짜별 기사에서는 당시 젊은 이덕무의 예민한 심사를 읽을 수 있다. 곧 이 <관독일기>는 24세 가을 이덕무의 개인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저술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우봉은 일기문학 연구의 자장 안에서 <관독일기>를

4)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독서관」, 『인문과학논집』 7, 1988, 177~198쪽. 이외 이덕무의 독서론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영, 「이덕무의 독서론」, 『동방학지』 36-37, 1983, 109~127쪽; 김은경, 「조선시대 독서 방법론 연구」, 『한문고전연구』 13, 2006, 303~346쪽; 이만수, 「형암 이덕무의 독서론」, 『독서문화연구』 7, 2008, 29~65쪽; 황혜영, 「이덕무의 작품에 나타난 삶으로서의 독서」, 『독서연구』 26, 2011, 577~602쪽; 한미경, 「조선시대 독서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 2013, 249~273쪽 등.

5) 남정희, 「조선후기 문인의 명·청 서적 수용과 독서의 경향성 시고」, 『한국문화연구』 8, 2005, 84~85쪽.

주목하고,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자아상”을 고찰한 바 있다.<sup>6)</sup> 정우봉은 이덕무의 『중용』 독서 및 일기 쓰기의 목적이 “외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념과 가치를 굳게 지켜나가는 군자상”의 실천 및 “독서를 통한 치유의 효과”를 얻으려 한 데에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관독일기>가 내포한 문예적 가치를 포착한 연구 성과로 의미가 깊다.

즉 <관독일기>는 전통적인 경전 공부와 개인 서정이 융합된 독특한 문예미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특징에 기대어, <관독일기>에서는 『중용』을 읽는 이덕무만의 독특한 독법이 포착된다. 이는 이덕무의 일기 저술 당시 정황과 『중용』 장구의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작용하며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덕무의 『중용』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관독일기>에 접근하는 독법은 문학으로서의 <관독일기> 연구에 있어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24세 가을 당시 이덕무의 생활과 저술에 대한 재구를 통해 <관독일기>에 나타난 『중용』 독서 양상을 독해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표를 통해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중용』 독서 진도의 상세와 그의 『중용』 독서가 갖는 방향성을 살펴겠다. 3장에서는 『중용』 독서의 계기가 된 백사 이항복의 ‘군셴[強], 곧 『중용』의 삼달덕(三達德) 중 용(勇)의 가치가 갖는 의미를 <관독일기> 저술 당시 이덕무의 개인사와 연관지어 논하겠다. 이어 이덕무의 용을 중심으로 한 『중용』 수용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여, <관독일기>의 문학적 의미를 조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6) 정우봉, 『이덕무의 <관독일기>에 나타난 자아상』, 『어문논집』 74, 2015, 40~68쪽 및 정우봉, 『조선 후기의 일기문학』, 소명출판, 2016. 정우봉 교수는 <관독일기>에 나타난 자아상을 ‘일상 속의 자아상’, ‘신분적 갈등 속의 정체성 확립’, ‘문인으로서의 의식 지향’의 세 가지로 나누고 평소 이덕무의 의식이 일기 쓰기를 통해 형상화된 양상을 탐구하였다.

## 2.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중용』 독서 과정

이 장에서는 먼저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중용』 독서 진도의 상세를 살펴보고 그 독서의 특징을 논하려 한다. 이덕무의 <관독일기> 독서 진도의 표와 그 내용의 요약은 박문열의 앞선 논문<sup>7)</sup>에 간략한 정리가 있다. 이덕무는 주자의 33장 편제를 기준으로 장절을 따져 가며 읽었다. 이하에서는 장절(章節) 기준 진도의 상세를 표로 추가하고 그 독서 과정을 분석하여, 이덕무 『중용』 독서의 방향성을 상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중용』을 읽지 않은 날짜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날짜	『중용장구』	내용	비고
9/9[戊午]	『중용장구서』	○ 『중용』 서문을 읽고 주자의 만고의 스승 됨을 경탄하였다.	
9/13[壬戌]	『중용장구서』	○ 『중용』 서문 자사의 말에 이단의 학설을 격파하고 노(老)·불(佛)을 경계하는 뜻이 있음을 말하였다.	서문만 열 번 읽음[讀十遍].
9/14[癸亥]	1:1	○ 명(命)·성(性)·교(教)·수(修)의 뜻과 역할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 고응척의 말을 인용하여 『중용』·『대학』은 건량(乾糧)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9/15[甲子]	1:1~3	○ 첫 장의 3구를 상·중·하구로 나누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도의 채용이 됨을 말하였다. ○ 2절에서, 장구[若其可離, 則豈率性之謂哉]를 읽고 탄복하였다.	읽는 횟수를 50회로 정함 [讀首章五十遍. 此以下依此遍數].
9/17[丙寅]	1:4~5	○ 1장의 다섯 절이 각각 점출한 바를 정리하고	

7) 박문열(1988), 앞의 논문, 187~196쪽. 이덕무는 『중용』 독서를 진행한 날 자신이 읽은 장절의 시작과 끝 구절 일부를 적어 독서의 진도를 표시하고, 이하에 읽은 부분에 대한 해석 및 견해를 메모하였다. 박문열의 표와 요약에서는 이덕무의 일기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여 적고 있다. 본고의 표에서는 『중용장구』 기준 장절의 상세와, 분석한 내용에 대응되는 장절이 무엇인지를 추가하여 보다 상세히 정리하였다.

		<p>주자야말로 자사의 지기가 된다고 경탄하였다.</p> <p>○ 5절과, 서두의 중용 풀이에 대한 정자(程子)의 주석이 각각 정대(精大)하고 진지(眞旨)하다고 하였다.</p>	
9/19[戊辰]	2~5	<p>○ 2장 2절에서, 주자의 소주[君子而處不得中者, 有之, 小人而不至於無忌憚者, 亦有之]를 읽고 동의하였다.</p> <p>○ 3장에서, 大文의 “선능(鮮能)” 두 글자가 아주 중요하고 장구[亦人所同得, 初無難事]또한 온칭(穩稱)하다고 하였다.</p> <p>○ 4장 2절[人莫不飲食也, 鮮能知味也]은 박절하지는 않다고 하였다.</p>	
9/20[己巳]	6~8	<p>○ 6장에서, “순(舜)”이 세 번 반복된 것은 찬미하는 뜻으로 성인(孔子)의 어법이라고 말하였다.</p> <p>○ 6장 “순기대지(舜其大知)”의 지(知)자와, 8장 “회지위인(回之爲人)”의 인(人)자가 서로 대응되어 인(人)에 인(仁)의 뜻이 내포된 것 같다고 하였다. 근거로 의가(醫家)에서 인(仁)을 인(人)과 통용하는 것을 들었다.</p> <p>○ 4장부터 8장까지, 총 여섯 절의 요지를 밝히고 이 부분이 가장 혼란되기 쉬우므로 조용히 궁리할 것을 주문하였다.</p> <p>○ 6장에서, “양 끝을 잡고 헤아려서[執其兩端]”는 본뜻을 놓치지 쉬워 주자의 소주를 통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p>	
9/21[庚午]	9~10	<p>○ 9장부터 10장까지, 순대지(舜大知)·회택중(回擇中)·가균가사(可均可辭) 및 네 건의 강(強)의 의미를 주자의 해석에 따라 풀이하였다.</p> <p>○ 율곡의 말을 인용하여 10장을 읽는 공효를 말하였다.</p>	
9/22[辛未]	10	<p>○ 『백사선생복천일록』을 인용하여 10장의 강함이 이항복의 태도와 같다고 말하였다.</p>	
9/23[壬申]	11	<p>○ 6장부터 11장까지 읽은 내용을 가지고, 용의 덕이 갖는 기능을 藥에 비유해 말하였다.</p>	
9/24[癸酉]	12	<p>○ 1장의 “막현호은(莫見乎隱)”, 11장의 “색은(素隱)”, 12장의 “비이은(費而隱)”의 세隱의 뜻이 각각 暗·僻·微로 다르다고 하였다.</p> <p>○ 12장은 자세히 따져서 읽어야 한다고 한 장구와 쌍봉요씨의 소주에 동의하였다.</p>	

		○ 4절의 “부부에게서 단서가 시작하니[造端乎夫婦]”을 두고 성인의 간절한 말이라고 하였다.	
9/25[甲戌]	13	○ 1절에서, “도끼자루를 가지고 도끼자루 만들 나무를 벤다[柯以伐柯]”는 시경의 말을 가지고 “사람으로써 사람을 다스린다[以人治人]”는 일을 비유한 것이 건강부회하였다고 보았다. ○ 3절에서, 충(忠)과 서(恕)는 상하구로 나누어 보면 수용이 극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 4절에서, 공자의 겸사에 담긴 의미를 말하였다.	
9/26[乙亥]	14~15	○ 14장 1절의 “不願乎其外”, 2절의 “君子無入而不自得焉”를 풀이하였다. ○ 15장 2절에 인용된 시경의 화락(和樂)·차담(且耽)·관이(宜爾)·낙이(樂爾)의 표현이 의미상 중복되는데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15장 3절[子曰父母其順矣乎]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하였다.	
9/28[丁丑]	16	○ 16장을 읽었다.	
10/2[庚辰]	16	○ “성(誠)” 자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16장의 내용을 이어 고찰함.
10/3[辛巳]	17~18	○ 17장에서, 1절과 2절의 자구간의 호응관계를 따지고 의미를 말하였다. ○ 3절은 평심(平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 18장을 읽었다.	
10/4[壬午]	18	○ 문왕의 일생과 “근심이 없음[無憂]”에 대해 고찰하였다.	18장의 내용을 이어 고찰함.
10/10[戊子]	19	○ 4절을 가지고 크게 공감하였다. ○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다[其如示諸掌乎]”라고 한 뜻을 밝혔다.	
10/12[庚寅]	20:1~7	○ 이수광의 『제체자리중용집전찬후』를 초록하여 “포로(蒲盧)”의 뜻을 상고하였다.	
10/14[壬辰]	20:8~9	○ 이몽양의 『공동자』를 인용하여 삼달덕장의 상고에 참고하였다.	
10/15[癸巳]	20:9~12	○ 10절의 용(勇)과 관련지어 9절의 의미를 밝혔다. ○ 삼달덕에서 용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9절의 내용을 이어 고찰함.
10/16[甲午]	20:12~15	○ “존현(尊賢)”이 구경(九經) 중에서 중추가 된다고 하였다.	

		○ 각 절을 서로 연관지어 구경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10/17[乙未]	20:16~18	○ 17절에서, “반제신불성(反諸身不誠)”은 이 절의 의미의 핵심이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자구의 배치가 교묘하여 어세가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힘이 있다고 하였다.	
10/18[丙申]	20:19~21	○ 이 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기질지도(變化氣質之圖)』를 지었다.	『변화기질지도』 작성
10/19[丁酉]	21~22	○ 22장에 나타난 자구의 의미를 말하였다. ○ 21, 22장에 붙은 주자의 장구에 탄복하였다.	
10/20[戊戌]	23~24	○ 23장의 형(形)·저(著)·명(明) 및 동(動)·변(變)·화(化)에 대해 논하였다. ○ 24장의 선·불선은 길·불길의 함의가 있다고 하였다.	
10/21[己亥]	25	○ 이 장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 운봉호씨의 소주를 주의 깊게 볼 것을 주문하였다.	
10/22[庚子]	26:1~8	○ 『주역』 항괘(恒卦)를 참고하여 8절 “구(久)”의 함의를 상고하였다. ○ 7절에서, 物과 生物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두 가지로 하지 않는다[不貳]”와 “헤아리지 못한다[不測]”를 각각 체와 용으로 풀었다.	
10/23[辛丑]	26:9~10	○ 보장(寶藏)과 화재(貨財)의 어휘를 상고하였다. ○ 신안진씨의 소주에 동의하였다.	
10/24[壬寅]	27	○ 이수광의 『제체자리중용집전찬후』를 초록하여 6절 존덕성장(尊德性章)의 의미를 상고하는데 참고하였다.	
10/25[癸卯]	28~29	○ 28장의 내용을 통틀어 문·무·주공의 일과 공자의 일을 고찰하였다. ○ 29장의 군자의 여섯 가지 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 공자와 자사가 불우하였음에도 단 한번도 분한(憤恨)하거나 격앙되지 않았던 기상에 탄복하였다.	
10/26[甲辰]	30~31	○ 30장 2절의 “복주(覆轡)”를 풀이하였다. ○ 31장 자구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10/27[乙巳]	32	○ 31장과 32장에서, “지극한 성[至聖]”과 “지극	

		한 성[至誠], “하늘과 같다[如天]”와 “못과 같다[如淵], ”그 하늘[其天]과 “그 못[其淵]” 및 “혈기 있는 것들이 높이고 친애한다[有血氣者尊親]”와 “천덕을 통달한 자라야 능히 안다[達天德者能知]”는 말이 서로 대응된다고 하였다. ○ 이수광의 설을 인용한 뒤 이를 꼭견이라 비판하였다.	
10/28[丙午]	33:1~3	○ 1절에서, 암연(闇然)은 장원(長遠)의 뜻이 있고, 적연(的然)은 천약(淺弱)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 주자 소주(淡則不厭)의不达(不達)를 연문(連文)으로 보았다. ○ 2절에서, “군자에게 미칠 수 없는 것[君子之所不可及]”은 곧 謹獨之難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11/1[戊申]	33:4~6	缺	『中庸章句』 진도 종료

표 1) 이덕무의 『중용』 독서 진도

이덕무는 먼저 서문부터 시작하여 『중용』을 차례대로 읽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려고 하였고, 장의 길이가 길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었다. 9월 9일부터 15일을 보면 서문이나 첫 장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러 날 반복하여 읽기도 했다. 장구를 함께 읽었으며, 소주도 참고하여 읽었다.

날짜별로 읽은 분량은 일정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일정이나 상황에 따라 분량을 조절하여 읽었기 때문이다.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생민동(生民洞) 종인(宗人)의 집에 숙식하였다. 그의 공부를 도울 때는 날짜를 자주 거르고 진도가 완만해지기도 했다. 다만 읽는 횟수는 많았다. 15일에 『중용』 첫 장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매번 50회씩 읽는다는 규칙을 세워 전통적인 다독과 숙독의 독서법을 적용하였다.<sup>8)</sup> 나아가 일과와 함께 독서의 기록을 남겨 그의 『중용』 독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이덕무는 매일의 기록을 도움닫기 삼아 독서를 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한 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었다.

8) 이는 이덕무 독서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특징이다.

또한 이덕무는 꼼꼼히 읽고 자의와 구절의 함의를 궁구했다. 이를 위해 선인의 『중용』 관련 변설을 함께 참고하고, 스스로의 견해를 같이 적어 경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전의 내용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그가 주로 읽은 것은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글이었다. 아래는 이덕무가 『지봉집』을 참고하여 『중용』의 어휘를 상고한 부분이다.

10월 12일[庚寅] (중략) ○ 지봉 이수광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살펴보니 『이아(爾雅)』에서는 과라(蝮羸)가 다른 이름이 포로(蒲盧)이니 바로 허리가 잘룩한 벌이라고 하였고, 『운회(韻會)』에서는 『시경』 주소에서 이르길 과라는 포로로, 포로는 뽕나무 벌레의 새끼를 취해 데리고 가 잘 길러서 자기 새끼로 만든다고 하였다. 정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남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성실한 뜻을 쌓지 않는다면 능히 감응시켜 덕에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이 포로를 가지고 가르침에 비유하셨으니, 성의로써 교화함을 이른다.’ 장하주에서는 『가어(家語)』의 ‘하늘의 도는 낱기에 능하고 사람의 도는 정치에 능하며 땅의 도는 심기에 능하다. 대저 정치는 포로이니, 교화를 기다려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데 있고 사람을 취하는 것은 몸으로써 하고 몸을 닦는 것은 도으로써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였으니, 정자의 말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포로의 노(盧)자는 노위(蘆葦)의 노자가 아닌데 심괄(沈括)이 포위(蒲葦)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혹시 윗글의 ‘땅의 도는 심기에 능하다’는 말을 인하여 그렇게 말한 것인가? 하지만 주자가 정자의 말을 버리고 심괄의 말을 취하였으니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인데, 내가 가만히 이를 의심해본다.” 내가 마침 포로장을 읽던 참이라 지봉의 설을 적어두어 나중에 이 대목을 상고할 것을 대비한다.<sup>9)</sup>

9)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 <觀讀日記> : “庚寅。(중략) ○李芝峰睟光曰: ‘愚按爾雅, 蝮羸一名蒲盧, 乃細腰蜂也。韻會曰詩注疏蝮羸蒲盧也。蒲盧取桑蟲之子, 負持而去, 煦嘔養之, 以成其子。程子云: 『告於人者, 非積誠意, 不能感而入也。’

10월 27일[乙巳] ○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이어아[唯天下至誠]’부터 ‘어느 누가 능히 알겠는가[其孰能知之]’까지 읽었다. ○ ‘지극한 성이대[至聖]’와 ‘지극한 성이대[至誠]’, ‘하늘과 같다[如天]’와 ‘못과 같다[如淵]’, ‘그 하늘[其天]’과 ‘그 못[其淵]’, ‘혈기 있는 것들이 높이고 친애한다[有血氣者尊親]’, ‘천덕을 통달한 자가 능히 안다[達天德者能知]’는 말은 윗장과 아랫장에 서로 대응이 되어 있다. 지봉이 말하기를 “어느 누가 알겠는가[孰能知之]’의知자는 위의 ‘천지의 화육을 안다[知天地之化育]’는 구절을 이어서 말한 것 같은데, 장구에 鄭玄의 설은 너무 평범하게 말했다.”고 하였다. 나는 이를 곡견이라고 본다. 신기한 것에 지나치게 힘쓰고 정미한 것을 지나치게 분석한다면 도리어 일반적인 것을 잃어 이런 폐단이 생겨나게 된다. 글 읽는 자는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sup>10)</sup>

위 두 일자에서 이덕무는 「제채자리중용집전찬후(題蔡子履中庸集傳贊後)」<sup>11)</sup>를 참고했다. 이는 이수광이 채정(蔡禎)의 『중용집전찬(中庸集傳贊)』를 논변하면서 『중용』의 구절과 이에 대한 채의 의견, 지봉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글이다. 이 제후는 이수광이 말년에 경학 연구에 힘쓸 때 지은 일련의 글 중 하나인데, 대개 『지봉유설』 유도부 및 경서부에 정리한 내용이 바탕이다.<sup>12)</sup> 이수광은 이 제후를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

故聖人以蒲盧喻教，謂以誠化之也。」按章下註引家語曰：「天道敏生，人道敏政，地道敏樹。夫政也者，蒲盧也，待化以成。故爲政在於得人，取人以身，修身以道。」云云。程子之言，蓋以此也。蒲盧之盧，非蘆葦之蘆字，而沈括以爲蒲葦，何也。豈因上文地道敏樹而爲之說歟。然朱子捨程而取沈，必有其意。愚竊疑之云。余適讀蒲盧章，載芝峰說，以備考覽焉。」

10) 李德懋, 『靑莊館全書』卷6, <觀讀日記>: “乙巳. ○讀自唯天下至誠, 至其孰能知之. ○至聖至誠, 如天如淵, 其天其淵, 有血氣者尊親, 達天德者能知, 上章下章, 自相爲對. 芝峰以爲其孰能知之知, 似是承上文知天地之化育而言, 鄭氏章句, 未免泛說云. 余以爲此曲見也. 太務新奇, 太析精微, 則反不平常而自生此弊. 讀書者, 不可不戒之.”

11) 李晬光, 『芝峯先生集』卷26, 韓國文集叢刊 卷66.

1563~1633)에게 보이고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정경세는 이수광의 변설에 대해 자신이 채자리의 얼굴이나 저술을 알지는 못하지만 스스로의 역량을 헤아릴 줄 모르는 자인 것은 잘 알겠다고 평한 후, 아울러 심의론(深衣論)을 제시한 한백겸(韓百謙, 1552~1615)과 같이 정확과는 어긋나는 학설을 제기한 학자들의 등장을 크게 염려하였다.<sup>13)</sup>

이덕무는 이 제후를 초록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 그 해 제석에 9월부터 연말까지 했던 일을 정리한 『갑신제석기』를 보면 이덕무가 이외에도 이수광의 『지봉유설』 등의 저술을 함께 읽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다른 독서 경험은 이덕무의 『중용』 독서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위 10월 12일에는 이수광의 관련 변설 전체를 초록하여 포로의 훈고에 활용하였다. 10월 27일에는 대장(對仗)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되, 이수광이 “지(知)”자의 대응을 지적한 점은 곡견으로 보아 경계하였다.

10월 24일도 27일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수광의 제후를 그대로 인용해 적고 스스로의 견해를 간략하게 덧붙였다. 이날 이덕무는 존덕성장(尊德性章)에 대한 채씨와 지봉의 설이 취할 점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둘 다 마땅하지는 않게 여겼다. 새 변설을 제기하는 일이 장구의 뜻을

12) 한영우,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 경세원, 2007, 91~92쪽 참조.

13) 鄭經世, 『書芝峯論蔡子履中庸集傳贊後』, 『愚伏集』 卷15: “老先生用盡一生心力, 發明聖人之言者, 極其精當, 乃所謂行之而後言者, 豈後學輩卒然立說所能攻破耶. 余不識蔡君面, 亦未嘗見其所著, 今但以芝峯所論者觀之, 亦可以想其人矣. 噫! 聞道百, 謂人莫己若, 猶爲大方家所笑, 而況聞道未百, 而謂先賢莫己若者, 又如何耶. 多見其不知量也. 恨芝峯之所以闢之者猶有未嚴, 而又恨久庵之有以啓此弊也. 噫!” 이외에 鄭經世, 『愚伏集』 卷9, 『與李潤卿癸亥』에서도 말미에 비슷한 논조로 말하였다.

14)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3, 甲申除夕記: “余於芝峰之書, 知幽怪變異之事, 歎天下之事物, 無所不有也.”

자세히 살피고 소주를 읽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sup>15)</sup> 즉 이덕무의 『중용』 읽기 방식은 주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장구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참고를 위해 관련 저술을 함께 읽었지만, 조금이라도 지나치다고 여겨진다면 곧바로 비판하였다.

이덕무는 이와 같은 견해를 <관독일기> 저술 이후로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2년 뒤 저술된 『이목구심서』에서 동중서가 순자와도 같이 성악(性惡)의 견해를 가졌다고 하면서, 정확에 어긋난 견해를 펼친 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양옹보다도 동중서를 먼저 비판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 그러하다.<sup>16)</sup> 그런데 자로문강장의 독서에서는 “용(勇)”에 대한 이덕무의 개인적인 견해가 포착되며, 나아가 그것이 이덕무의 『중용』 독서 양상에 있어 핵심이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 3. 이덕무의 ‘용(勇)’ 주목 양상

#### 1) 이덕무의 『중용』 독서 동기

이덕무가 <관독일기>를 쓰게 된 까닭은 『갑신제석기』의 한 대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나는 뜻을 굳세게 먹고 고인의 글을 읽기로 결심하였지만 겨를이 없었다. 무더운 여름 낮고 습한 집에 앉아 부지런히 과거 문장을 공부하는 것이 어찌

15)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 <觀讀日記> : “壬寅. (中略) ○余以爲二人之說, 大同小異, 或有可取處. 然不如詳看章句之意, 又尋小註胡雲峰所言, 以窺究之, 溯夫朱子之參訂, 可也.”

16)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51, 『耳目口心書』 卷4 : “愚以爲仲舒之見, 何不明之甚也. 旣曰框衆惡於內, 則是苟卿性惡之說也.”

내 마음에 시원하라! 9월이 되어 비로소 나의 급하고 들뜬 생각을 누르고 바르게 앉아 『중용』을 읽었다. 대저 성명(性命)·비은(費隱)·지인(知仁)·성명(誠明)의 심오한 뜻에는 밝지 못하였다. 『중용』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군자는 화합하나 휩쓸리지 아니하나니 군세도다. 중립하고 편벽되지 아니하나니 군세도다. 나라에 도가 있어 벼슬하게 되면 빈천할 때의 지조를 변하지 아니하나니 군세도다. 나라에 도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더라도 뜻을 변하지 아니하나니 군세도다.” 하였다. 나는 정충신의 『북천일기』에서 ‘문충공이 선조대왕의 원로대신으로서 인목대비를 폐할 수 없다는 의론을 주장하다가 북청으로 귀양가서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는 슬피 상심하여 ‘군세도다’를 외어 그를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찍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크도다, 사서에 『중용』이 있음이여! 그것은 삼경에 『주역』이 있는 것과 같도다. 나 소자는 어리석으니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에 관독일기를 지었다. (하략)<sup>17)</sup>

『갑신제석기』는 <관독일기> 쓰기를 마치고 한 달 후인 1764년 설달그믐에 쓴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 <관독일기> 세 권을 쓴 일을 적었다. 이 때 그는 스스로 『중용』의 이치에는 밝지 못하다고 겸양하면서도, 군자의 굳셈[強]에 주목하며 『중용』의 자로문강장을 특필하고 있다. 이어 이덕무는 이 장에 나타나는 굳셈과 『북천일기』에 나타난 백사 이항복의 태도를 연결시키며 여기에서 느낀 바가 있어 <관독일기>를 짓게 되었다고 밝혔다. 곧 자로문강장은 이덕무가 『중용』을 읽으며 가장 눈여겨 본 구절 중 하나이며, 그가 자신의 독서 경험을 일기 형식의 기록으로 남기도록 촉발

17) 李德懋, 『甲申除夕記』, 『嬰處文稿』 『靑莊館全書』 卷6: “余志夫刻意讀古人書而不遑焉。夏蒸炎, 坐湫卑屋, 矻矻攻擧子文, 豈余心灑然哉! 建戌之月, 始抑余動動浮浮之思, 匡坐讀中庸之書。夫性命費隱知仁誠明之奧, 余蓋夢夢云, 中庸曰: ‘君子而和不流, 強哉矯。中立而不倚, 強哉矯。國有道, 不變塞焉, 強哉矯。國無道, 至死不變, 強哉矯。’ 余觀鄭忠信北遷日記, 白沙李文忠公, 以先王之老大臣, 主廢母后不可議, 竄北靑以死, 未嘗不黯然傷心, 誦強哉矯而吊之也。余嘗嘆曰, ‘大哉, 書之有庸。其猶經之有易也歟。小子顛蒙, 何入焉。’ 於是著觀讀日記。(下略)”

한 핵심 지점이 된다.

자로문강장은 『중용』의 제10장이다. 주자는 『중용』의 2장부터 11장까지는 삼달덕인 지·인·용을 내세워 도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았다고 풀이했다. 이때 그는 삼달덕 중에서 용의 개념이 『중용』 10장에서 공자가 설명한 군셈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제6장 순 임금의 일은 지, 8장의 안희의 일은 인, 10장의 자로의 일이 용의 사례가 된다.<sup>18)</sup> 곧 이덕무가 자로문강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삼달덕 중에서도 용의 덕에 주목한 것이다.

공자가 자로에게 설명한 군셈은 화합하면서도 휩쓸리지 않고[和而不流], 중도에 서서 치우치지 않으며[中立而不倚], 나라에 도가 있어 영달 하더라도 궁색할 때의 뜻을 변치 않고[國有道不變塞焉], 나라에 도가 없어 죽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國無道至死不變] 자질이다.<sup>19)</sup> 주자에 따르면 이는 지나치게 온유한 남방의 강함 및 강포하기만 한 북방의 강함과도 전혀 다른 군자의 중용의 덕이다. 이덕무는 이항복이 북청(北靑)으로 유배되면서도 인목대비의 폐비론을 반대한 태도가 바로 군자의 군셈 모습이라 여겼다. 또한 9월 22일 일기에서도 『북천일록』을 언급하며 다시 이항복을 주목하였다. 여기서는 군자의 네 가지 군셈 중에서도 죽음을 꺼리지 않고 끝까지 불변한 자질이 바로 이항복에게 있다고 적었다.

18) 『中庸』 11章 章下註：“蓋此篇大旨，以知仁勇三達德爲入道之門。故於篇首即以  
大舜顏淵子路之申明之。舜知也，顏淵仁也，子路勇也。三者廢其一，則無以造道  
而成德矣。”

19) 『中庸』 10章：“子路問強，子曰：‘南方之強與，北方之強與，抑而強與？寬柔以教，  
不報無道，南方之強也。君子居之。衽金革死而不厭，北方之強也，而強者居之。故  
君子和而不流，強哉矯。中立而不倚，強哉矯。國有道不變塞焉，強哉矯。國無道至  
死不變，強哉矯。’”

## 2) 당시 이덕무의 상황

이때 이덕무가 불변하는 굳센 태도를 주목하게 된 까닭이 있다면, 그것이 곧 이덕무의 『중용』 독서 목적과 관련될 것이다. 이를 이덕무의 개인 사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려 한다. <관독일기>를 저술할 당시 이덕무의 가정에는 갖은 우환이 있었다. 고질적인 가난은 물론이거니와,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되어 쉽게 낫지 않았다. <관독일기>를 저술하기 한 해 전에는 딸의 죽음을 겪었다. <관독일기>를 작성하던 10월경에는 아내가 장남 광규(光葵)를 임신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첫 딸을 잃은 이후에 들어선 자식이므로 일면 기쁘면서도, 상기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덕무는 다소 복잡한 심경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 계속된 과거 공부로 그는 독서의 목적이 전도되었다고 느꼈다. 앞서 <관독일기>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덕무는 당시 스스로 과거 공부가 아닌 학문에 온전히 열중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중용』 독서에 매진할 당시 과거 공부를 온전히 폐한 것은 아니었다. 1764년 가을은 반시(泮試)와 상제(庠製)가 겹쳐 열리는 시기였다.<sup>20)</sup> 이덕무는 1764년 이후로도 과거 공부를 지속하여 1773년 겨울에 상제에 장원하였으며, 1774년 가을에는 증광초시에 합격한 바 있다.<sup>21)</sup> 과업 외의 일도 병행해야 했다. 『중용』을 독서하는 중에도 이덕무는 남에게 자주 책을 빌렸는데, 읽기 위함일 뿐 아니라 용서(傭書)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부탁을 받아 남의 공부를 지도해 주기

2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 <觀讀日記> : “辛酉. (中略) 自今月以來, 泮試庠製與丹楓黃菊, 同淋漓爛熳矣, 無一人持試製易楓菊, 幾往而不返矣. 兄能於塵白中, 拈出楓字三清字秋氣字蕭灑搖落字, 是吾所謂有古人味者也, 弟病不瘳矣, 試明日來之.”

21) 李光葵, 『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 下.

도 하였다. 그는 근 보름 간 친척 집에서 숙식하며 종인을 가르쳐 권면하였는데, 보름은 실제 『중용』의 독서에 할애한 기간을 고려할 때 짧은 일자가 아니었다.<sup>22)</sup>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이덕무에게 생활의 문제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10월 9일 기사에는 생민동에서 돌아온 뒤 직접 집을 보수하다가 병을 얻어 『중용』 읽을 시간을 놓쳤다고 한탄했던 일이 실려 있다.

**10월 9일[丁亥]. 『시경』 빈풍장에 이르기를 “빈틈을 막고 귀를 몰아내며, 북쪽 바라지를 막고 창문을 바른다.”**고 하였다. 내가 며칠 동안 몸소 이 일을 하였더니 수고가 더욱 심하여 건강하지 못하였다. 도리어 이런 조그만 일에도 때로 흔들리니 큰일에 있어서는 어떤단 말인가? 나는 혹시 조그만 일에 다만 이같이 어물거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자책할 뿐이다. 이 때문에 일과의 독서를 폐하게 된 것이 또한 한스럽다. 농암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과에서 얻어지는 공효는 가장 쉽게 나타난다. 비록 하루에 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공부가 누적되어 의미가 져어드는 것과 하다 말다 하는 것은 어찌 그 차이가 갑절이 될 뿐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읽고 매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sup>23)</sup>

이날 이덕무는 집을 보수하다가 얻은 병으로 독서를 쉬어갔다. 이때 그는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여 맘 편히 본업에만 몰두하기 어려웠던 환경을

22) 9월 22일부터 10월 5일. 집에 돌아온 것이 10월 6일이었다. 11월 1일 이후의 기록은 결락되었지만, 9월부터 『중용』을 완독한 기간만 따져도 채 두 달이 되지 않았다.

23)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 <觀讀日記> : “丁亥. ○ 詩云: ‘穹窒熏鼠, 塞向墮戶.’ 余從數日來, 躬自爲之, 勞擾滋甚, 不能勤健. 顧茲瑣屑, 有時浮搖, 其大事何哉! 無乃小事祗糊塗者耶, 自慰而又自責也. 以茲廢課讀, 又自恨也, 農巖先生曰: ‘日課之功, 最易見效. 雖一日所做不多, 工夫積累, 意味浹洽, 與或作或輟者, 何翅相倍.’ 余讀斯言, 深有愧焉.”

버거워하고, 나아가 하찮은 일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체질을 한탄하였다. 또 비단 몸의 괴로움을 호소할 뿐 아니라, 김창협(金昌協)의 말을 인용하여 공부부가 매일 쌓이지 못함을 매섭게 질책하고 있다.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는 예민하고도 바른 성정이 드러난다. 곧 이 시기의 이덕무는 그가 처한 현실의 문제로 공부 방향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런 경험이 그로 하여금 굳건한 정신을 갈망하게끔 하였고, 이를 위해 『중용』 독서를 일과로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덕무가 독서에 벽이 있다고 할 만큼 책 읽기를 즐긴 인물이었으므로, 고단한 상황에서도 차 독서를 놓지 않았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중용』 독서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독서에 가까워 보인다. 경서의 정독을 통해 위와 같은 고난을 타개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더불어 <관독일기> 저술 당시 평소 교유하던 벗들과 교유가 다소 뜸해진 정황이 보인다. 아래는 이덕무가 1764년 가을에 죽질인 이광석(李光錫)에게 준 편지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달 초에 남쪽으로 출타하셔서 아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세색과 더불어 점점 깊어지는구려. 하물며 어머니 건강이 좋지 못하시어 매우 마음 졸이네. 치천은 지난달 그믐 경 양애(陽厓)에 돌아갔고 명오는 통진(通津)에 갔으며, 경지도 남양으로 갔네. 그리고 보니 벗들은 모두 뿔뿔이 떠나가고 나 혼자만 쓸쓸한 방에 우뚝 앉아, 『중용』을 읽으면서 내가 나와 더불어 함께 지키고, 내가 묻고 내가 답하며, 내가 읊조리고 내가 듣고 하네. 우리 심계자가 곁에 있어 함께 찾고 궁구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네. (하략)<sup>24)</sup>

24)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15, 「族姪復初光錫」: “嚴親月初南游, 思親者懷, 與歲色垂垂深哉. 矧伊慈候不寧, 熬煎熬煎, 稚川前月晦際歸陽厓, 明五往通津, 景之亦南陽去焉, 於是, 同人俱落落矣, 祇吾也兀居秋室, 讀中庸書, 吾與吾相守, 吾問而

『중용』을 읽을 당시 이덕무의 주변 벗들이 우연히 각자 흠어져 생활하던 정황이 보인다. 부친의 잦은 출타에, 어머니가 오랜 병을 앓았다. 여기에 대인관계에서 마주한 고독감이 겹쳐 독서에 침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듯하다. 이 외에도 이광석에게 보낸 일련의 편지가 <관독일기> 저술 당시에 쓰였는데, 이와 대조하여 당시 이덕무 주변 인물들의 행적을 짐작할 수 있다. 외사촌인 박종산은 <관독일기> 저술 당시 계속 남양에 돌아가 있었고, 그 해 겨울에야 이덕무가 직접 찾아가 만날 수 있었다. 이광석의 마포 집과도 거리가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10월에 이광석이 상처하여 경황이 없었다. 이덕무가 스스로 버거운 삶에 회의를 느꼈을 때, 마침 벗들과도 자주 왕래하지 않고 내면에 홀로 침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특히 <관독일기> 쓰기를 시작한 9월 초가 그러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편지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덕무는 이광석에게 얼굴을 보자고 권하며, 혼자 『중용』 구절을 자문자답하는 자신의 외로운 모양을 한탄한다. 이는 물론 범상한 말이지만, 교류가 다소 줄어들며 독서를 오롯이 자신 안으로 들일 겨를이 생겼던 상황을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당시 이덕무는 일상에 찾아온 고독을 내면 수양의 계기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때 『중용』의 독서는 그 수단이었다.

### 3) ‘용(勇)’ 주목 양상과 의미

이덕무의 ‘용(勇)’ 주목 양상은 자료문강장 읽기에서부터 나타난다. <관독일기> 내 자료문강장 관련 독서는 이덕무가 『중용』 6~11장을 읽은 9월 20일[己巳]부터 23일[壬申]에 걸쳐 나타난다. 먼저 6~11장을 읽

---

吾答也, 吾咏而吾聽也. 恨無吾心溪子在傍尋繹也. (하락)<sup>1)</sup>

은 일자의 일기를 살펴보겠다.

**9월 20일[己巳].** (중략) ○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 임금은 크게 지혜로우셨을 것이니[子曰舜其大知]’로부터 “(안희가 한번 선을 얻으면) 잃지 않았대[不失之矣].’라고 하셨다.”까지 읽었다. ○ 순대지장(舜大知章)에 공자께서 세 번씩이나 순(舜)자를 언급한 것은 순 임금을 찬미하는 뜻이다. 이러한 곳에서 성인의 어법을 알 수 있다. ○ 순 임금의 큰 지혜란 지(知)이고, 안희가 중용을 택함은 인(仁)에 속한다. 공자의 말씀에 회(回)의 사람됨[回之爲人]의 인(人)자는 ‘순의 대지’라는 ‘지[知]’자와 상대가 되어 인(仁)의 뜻이 들어 있는 듯하다. 인(仁)은 인(人)의 뜻이기 때문에 의학에서도 살구씨를 간혹 행인(杏仁)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말이 잘못 되었는지도 모른다. 도리어 공자께서 그들의 자품에 대해 비유하여 말씀한 것으로 보는 것만 못하겠다. (하략)<sup>25)</sup>

일기를 살펴보면, 이덕무는 삼달덕과 중용의 도에 대해 주자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기술하였다. 9월 20일 기사에서는 순과 안희의 덕을 각각 지와 인으로 풀이한 주자의 견해를 풀어 적고 있다.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부분도 있다. ‘안희의 사람됨[回之爲人]’의 인(人)이 곧 인(仁)과 상통하는 것으로, 앞장의 ‘순 임금은 큰 지혜가 있는 분[舜其大知]’에서의 지(知)와 그 글자가 대응을 이룬다고 적었다. 하지만 확정적인 언급은 자체하였다. 개인적인 변설을 앞세우기보다는, 주자의 장구 내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인 것이다.

25)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 <觀讀日記> : “己巳. (中略) ○讀自子曰舜其大知, 至不失之矣. ○舜大知章, 夫子三說舜字, 蓋美之之意, 此等處可觀聖人言法. ○舜大知既屬知, 而回擇中又屬仁, 則子曰回之爲人之人字, 無乃與舜其大知之知字相對而有仁字之意歟. 仁者人故也. 醫家以杏仁, 或爲杏人. 然余之言, 其或曲也歟. 反不如夫子稱其資稟之爲愈也. (下略)”

9월 21일[庚午]. (중략) ○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 국가도[子曰天下國家]’에서부터 “굳세도다, 꺾끗함이여[強哉矯]”까지 읽었다. ○ 순의 대지(大知)와 안자의 택중용(擇中庸)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능히 중용을 이룬 지와 인이다. “다스릴 수 있고 사양할 수 있다[可均可辭]”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 중용을 이루지 못한 지와 인이다. 여기에 “칼날을 밟고 죽을 수 있다[白刃可蹈]”는, 용(勇)에 관한 일을 부가하여 네 가지 강함을 내세운 것은 그 다음의 공부를 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율곡선생이 일찍이 『맹자』의 거천하지광거장(居天下之廣居章)과 『중용』의 강재교장(強哉矯章)을 읽을 때 세 번 감탄하였고, 잠을 깨면 항상 외워서 뜻을 세우고 몸을 닦는 근본으로 삼았으니 선생의 평생 출처가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장을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의지가 고상하고 분발되어, 우둔한 기질과 치우친 뜻이 거의 벗겨지는 듯하다. 어느 누가 성인의 세대가 이미 멀어졌고 그 말이 이미 묵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수레바퀴 깎는 사람이 이른바 “성인의 술지게미일 뿐이다” 운운한 것은 곧 자포자기한 것이며 또한 덕을 해치는 것이다. (하략)<sup>26)</sup>

이어 9월 21일에는 10장인 자로문강장을 읽었다. 이 날 기록에서는 율곡이 『맹자』 「등문공」 편의 거천하지광거장과 『중용』의 자로문강장을 읽으며 세 번씩 감탄했던 일을 인용하였다.<sup>27)</sup> 이를 통해 독서자의 뜻을 고

26)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 <觀讀日記> : “庚午. (中略) ○讀自子曰天下國家, 至強哉矯. ○舜大知回擇中, 是知仁之不偏倚而能中庸者, 可均可辭, 是知仁之偏倚而不中庸者, 加說白刃可蹈勇之事, 以出四件強, 爲擇後工夫也. ○栗谷先生嘗讀孟子居天下之廣居章及此強哉矯章, 三復歎息, 或睡覺則誦以爲立心修身之地, 可見老先生一生行藏, 如余者讀此章, 不覺耿介而激昂振發, 昏惰之氣, 邪僻之意, 庶幾脫然矣, 孰謂聖人既遠, 其言已陳也, 斲輪者之所謂聖人之糟粕云者, 是自暴自棄者, 而亦賊夫德者也. (下略)”

27) 『율곡전서』에 이 일이 보인다. 李珣, 『栗谷全書』 卷38, 『前後辨誣章疏』 : “門人李有慶丁亥疏略曰, (中略) 又曰, 嘗讀孟子中庸, 至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 與民由之, 不得志, 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

양시키는 구절로서 자로문강장의 강(強)이 갖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였다. 이덕무는 자신과 같이 기질이 우둔하고 뜻이 치우친 사람에게 해당 장이 주는 공효가 더욱 크다고 느꼈다. 이는 스스로의 약한 기질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어서 22일에도 자로문강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앞서 『갑신제석기』에서 언급하였듯이, 『북천일록』에서 이항복이 인목대비의 폐위에 반대하였던 일이야말로 자로문강장에 나타난 군쟁을 실천한 것에 가깝다고 적었다.<sup>28)</sup>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켜, 백사선생과 같이 군쟁 경지에 이르러야 바랐던 것이 보인다.

이 같은 공효를 강조한 것이 다른 일자에서도 보인다. 뒤이어 23일에는 『중용』을 11장까지 마저 읽고, 용(勇)의 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재차 개진하였다.

**9월 23일[壬申].** (중략) ○ 독서를 또한 약에 비유할 수 있다. 중용을 하는 자는 원기가 충실하고 맥박이 잘 통해 수족과 이목이 잘 움직이고 총명하여 원체 조금의 아픔도 없는 것과 같다. 인과 지를 하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이 또렷하고 기혈이 충만하여 애당초 사특한 기운의 침투가 없다. 거기에다 잘 기르고 잘 조리하여 한시도 끊어짐이 없으므로 한평생 건강

武不能屈，此之謂大丈夫及故君子和而不流，強哉矯，中立而不倚，強哉矯，國有道，不變塞焉，強哉矯，國無道，至死不變，強哉矯二節，未常不三復歎息曰：‘大丈夫平生立志當如此。’或夜睡覺，則誦此二節，以爲自家立心修身之地。”

- 28) 앞서 살핀 『갑신제석기』에서도 이 날의 일을 적고 있으므로 본문에는 넣지 않았다. 9월 22일자 일기는 다음과 같다.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 <觀讀日記>: “辛未(中略)○夜觀鄭錦南忠信所撰白沙先生北遷日錄. 蓋廢大妃收議時, 白沙與鄭忠貞公弘翼, 引虞舜號泣怨慕, 而不見其有不是處, 又引爲伋也妻者爲白也母, 言甚正大, 立人紀, 扶天常, 亘萬古以不惑之議也. 嗚呼! 羣小迺反合啓請罪, 大槩以爲‘舜匹夫也, 雖見害母, 禍止一身, 恭爲子職者, 舜之所以爲舜也, 帝王處變之道, 不可與匹夫同.’ 又曰: ‘舜旣在君位, 則爲舜臣者, 豈可坐視舜之被害, 而不明母之罪乎.’ 又引瞽瞍殺人, 臯陶執法, 舜不得禁爲言. 因請安置, 竟竄北靑, 憂國以沒. (中略) 燈影翻翻, 讀到中庸國無道至死不變, 強哉矯垂, 淚以喟曰: ‘白沙公, 其庶幾乎.’”

하여 조그만 병도 없다. 중용을 하지 못하는 자는 애초부터 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병의 근원이 점차 커져서 온갖 고통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만약 제때에 조치하지 않으면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른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고 벼슬을 사양하고 칼날을 밟을 수 있는 자와 남방의 강을 하는 자와 중도에서 폐하는 자는, 처음에는 비록 거칠게나마 조리하는 이치를 알지만 그것을 넓혀 두루 통하게 하지 못하고, 한 가지 소견을 고집하다가 도리어 병증에 빠져 원래보다 나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은백한 것을 구하고 괴이한 것을 행하는 자는 병이 들기 전에는 비록 조양할 줄 알았더라도 마침내 과도한 데로 돌아가고 만다. (중략) 이 같은 증세들은 인삼·부자로 그 미급함을 보충시키고 망초·대황으로 그 과도함을 깨뜨려 보통의 병 없는 상태를 찾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질 병이 될 것이다. 순의 지와 안희의 인을 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인삼·부자·망초·대황이 있어도 어디에 쓰겠는가? 하지만 이 외의 사람에게는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된다. ‘군세도다, 곳곳함이여’가 용이 되는 것은 인삼·부자·망초·대황과 같은 것이다. 만일 남방의 강함만을 들어 약재라고 한다면 그 기운이 느려서 쓸모가 없으며, 북방의 강은 원래 쓸 수가 없다. 또한 다만 은백한 것을 구하고 괴이한 것을 행하는 것만 가지고 약이라 한다면 쓰자마자 병세가 악화되고 말 것이다.<sup>29)</sup>

29)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 <觀讀日記> : “壬申. (中略) ○讀書亦可以藥喻. 中庸者, 元氣充實, 脈膜暢順, 手足耳目, 便利聰明, 元無些兒痛痒之類也. 仁智者, 生得精神英明, 氣血盛滿, 元無邪氣之可闖入. 尤善存養調理, 無一時間斷. 故一生康健而無微恙也. 其不中庸者, 初非不盛壯, 而伊來病源漸滋, 百種纏嬰, 若不適時調治, 終至死界矣. 其可均可辭可蹈者, 南方之强者, 半塗而廢者, 初雖粗知調養之理, 而不能廣爲周章, 偏守一見, 反墜病窩, 不至勝常之境矣. 素隱行怪者, 不病之前, 雖知調養, 而終歸於過當. (中略) 此數者, 若不以蔘附補其不及, 硝黃攻其過當, 以至於無事平常之地, 則不可也. 否則癩育矣. 夫舜回之仁智者, 雖有蔘附硝黃, 將何用之, 以外則不可須臾無也, 強哉矯之爲勇者, 其猶蔘附硝黃也歟. 若單舉南方之強, 以爲藥也, 則氣味緩慢, 不入用矣. 北方之強, 元不可用也. 又單舉素隱行怪謂之藥也, 則隨其用而症轉敗矣.”

이날 이덕무는 특별히 용의 덕이 이루는 중용을 인삼·부자와 망초·대황 같은 약재에 빗대었다. 순 임금과 안희처럼 지와 인을 갖춘 사람들은 이미 중용의 도에 이르렀기에 따로 약을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중용을 하지 못하는 자라면, 약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의 약을 써서 중용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한 곳으로 치우친 강함이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중용의 덕이어야 한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고, 벼슬을 사양하고, 칼날을 밟을 수 있는 자는 삼달덕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모두 중용을 이루지 못한 것이므로 병통이 있다. 이는 남방의 강함과 북방의 강함이 군자의 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은미하고 괴이한 것만 좇는 태도는 오히려 과도하게 되니 말할 것도 없다.

용의 약은 아직 중용에 이르지 못한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자·인의 덕이 순 임금과 안희, 곧 성인이거나 성인에 근접한 사람에 결부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용』에서 용의 덕은 자로와 같이 성급하지만 단호하게 정진하는 인물을 예시로 들어 설명되고 있다. 곧 주자는 사욕을 이겨 도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마음의 자세를 용과 관련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중용』의 용은 정진함이자 범인(凡人)의 발전 가능성을 뜻하는 개념이 된다. 이때 약이 될 수 있는 독서는 바로 『중용』의 독서이자, 넓게는 경서의 독서로 보아야 하겠다. 이는 여타의 독서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덕무는 자료문강장 이하의 장을 읽으면서도 계속 용의 덕을 호명한다. 그의 『중용』 독서에 있어 용은 요체였다. 아래는 『중용』 20장, 특히 삼달덕장을 읽으며 쓴 일기이다.

10월 14일[癸巳]. (중략) ○ 이북지의 『공동자』를 살펴보니, 말하기를 “가을 구름은 넓게 퍼지고 얇으므로 그 비가 가늘고, 여름 구름은 뭉쳐져서

솟구치므로 그 비가 거세다. 화기 또한 전일하게 한 뒤에야 성하게 되는 것이니, 형세가 그렇다. 요란한 천둥이 사해를 휩쓸고, 소나기가 팔방을 다 적시는 것은 하늘과 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인과 지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용을 들게 되니, 용은 전일하고 성대하게 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삼달덕장을 읽던 참이라 복지의 말을 기록하여 참고한다.<sup>30)</sup>

이날은 이몽양의 『공동집』 『화리(化理)』편에서 삼달덕에 대한 글을 초록하여 참고하였다. 그런데 이 글은 지나 인의 덕보다 용을 앞세우고 있다. 가을 구름이 없거나 알팍한 것과 다르게, 여름의 뭉게구름은 한테 크게 뭉쳤으므로 그 힘으로 큰 비를 뿌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용으로서 화기(化氣)를 전일하고 크게 하여야만 비로소 성대하게 된다. 이때 인과 지 또한 다른 것이 없이 전일하게 하여 확충해야 할 덕이라는 점에서는 용의 덕과 떼놓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이덕무의 용의 덕에 대한 개인적인 추구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10월 15일[癸巳].** (중략) ○ 편안하게 여겨 행하는 자는 처음에서 끝까지 균일하고 원만하여 한시라도 그침이 없다. 이롭게 여겨 행하는 자는 처음에는 정해진 바가 없다가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할 곳을 알아 점차 행하여 갈수록 더 좋아진다. 힘들여 행하는 자는 처음에는 힘이 들다가 나중에야 깨닫는 것이니, 큰 역량을 발휘하여 남보다 백배의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아래 장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에 가깝대[知恥近乎勇]”는 말로 끝맺었으니, 성인의 말은 참작이 깊어 구차

3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 <觀讀日記> : “壬辰. (중략) ○按空同子曰: ‘秋之雲, 濶而薄. 故其雨微. 夏之雲, 獨而湧. 故其雨注. 化氣亦專, 而後壯者, 勢然也. 轟雷徧四海, 涑澍盡八埏, 天地能之乎. 故言仁智者, 必曰勇, 勇者, 專壯之義也’云. 余讀三達德章, 記北地言參考焉.”

하지 않음이 이와 같다. ○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에 가깝다[好學近乎知]”에서부터 “제후를 감싼다[懷諸侯也]”까지 읽었다. ○ 대저 삼달덕에는 다 용이 들어 있지만, 나서부터 아는 지[生知]와 편안하게 여겨서 행하는 지[安行]는 용에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용이 되어 본래로 천연의 용이 있다. 그러므로 조금의 흔적도 없다. 애써서 알게 되는 지[困知]와 힘써서 행하는 지[勉行]에 이르러서는 용을 애초부터 힘써야 한다는 저의가 있다. 아래 대문(大文)의 호학(好學)·역행(力行)·지치(知恥)는 주석에 ‘용의 다음이다[勇之次也]’고 말하였는데, 이는 용에 대해 힘쓰기를 간헐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인·용에 가까워지는 까닭에 다음이라고 한 것이다. 남과 같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도 용의 일단이다. (하략)<sup>31)</sup>

15일 일기에서도 이어서 삼달덕에 대해 적고 있다. 나서부터 알아 편안하게 여겨 행하는 자와, 배워서 이롭게 여겨 행하는 자는 각각 지와 인의 덕행과 관련된다. 이에 비해 억지로 힘을 들여 행하는 자는 아는 데에도 간신히 다다를 수 있으며 도에 들기 위에 부단히 애써야 한다. 하지만 일단 공을 이루어 도에 들면 그 경지는 결국 같다.

이때 부끄러움을 아는 것[知恥]은 용에 가까운 것이자, 삼달덕에는 미치지 못하나 비슷한 수신의 방법이다. 앞서 이덕무가 일상의 고난으로 힘써 공부하지 못함을 자책한 일이나, 자신이 우둔한 기질을 가졌음을 인지한 것은 곧 용의 덕의 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불초함을 부

31)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 <觀讀日記> : “癸巳. (중략) ○安而行之者, 自初至終. 勻一圓滿, 無一時之欠缺也. 利而行之者, 初無定所. 於今始知入頭處, 漸漸而行之, 愈往愈好也. 勉強而行之者, 初既硬樸, 未迺覺得不著大力量, 百倍於它人工夫, 則不可入道. 故下章以知恥近乎勇結之, 聖人言語斟酌, 不苟艱如此. ○讀自好學近乎知, 至懷諸侯也. ○大抵三達德, 勇字皆隨之, 而生知安行者, 不勉勇而自勇, 有本來天植之勇. 故無一些痕跡, 至困知勉行, 勇始有著力底意, 下文三近章句, 勇之次者, 非歇著勇字上用功以其近也. 故謂次. 蓋不若人爲恥, 亦勇中之一事. (하략)”

끄러워하며 스스로 질책하여 나아가는 행동은 그 자체로 용의 덕에 버금가는 가치이며, 장기적으로는 용으로써 도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용의 특성은 스스로 외부적 상황에 휘둘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다잡아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였던 이덕무의 독서 목표에 들어맞는 것이었다. 이덕무가 용의 가치를 중심으로 『중용』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그는 <관독일기>의 저술을 통해 『중용』 독서와 자기 성찰을 병행하여, 스스로의 부족한 면모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면의 성장에 도달하려는 강건한 심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관독일기>에 나타난 이덕무의 『중용』 독서 및 용(勇)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덕무의 『중용』 해석은 주자의 해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독일기>는 자칫 『중용』을 읽고 메모한 공부 노트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덕무가 『중용』을 독서할 당시의 상황과, 그가 당시에 독서를 통하여 갈구하였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추적하는 과정이 덧씌워진다면, 이덕무의 『중용』 읽기와 용의 주목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24세 가을의 이덕무는 『중용』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에 끌어오하고자 하였다. 옳은 도리를 궁구하며 항상 용맹하고 굳센 태도, 이를 통해 덕을 완성하는 데로 나아가기를 꾀하는 태도는 당시의 이덕무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였다. 그는 이와 같은 자세를 독서라는 약을 통해 얻고, 용의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고자 하였다. 울적한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고 독서에 임한 모습에서, 거둬 닦친 우환 속에서도 가만히 낙담하거나 비판하지만은 않았

던 강인한 속내가 드러난다.

<관독일기>가 갖는 가치는 24세 이덕무의 내면을 오롯이 보여 주는 저술이라는 점에 있다. 이덕무는 결코 훈고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려는 목적 하에서 『중용』을 읽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짚었듯이, 그는 독서를 하지 못한 날의 우울한 심사 또한 <관독일기>로 한 데 묶었다. 『중용』 독서 기록을 표방하면서도, 『중용』을 읽기로 결정한 자신의 내면을 기록하는 일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관독일기>를 통해서는 『중용』의 수용 양상 뿐 아니라 당시 이덕무의 일상적인 서정을 재구할 수 있다. 더욱이 이덕무의 20대는 그의 일생에서 문학적 창작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므로, 이덕무 문학 연구의 측면에서도 <관독일기>에 나타난 서정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독일기>는 날짜별 구성을 토대로 미세한 연보를 구성하여, 이를 이덕무의 문예적 성과에 접목하여 해석하게끔 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덕무는 그 섬세한 기질을 바탕으로 일찍이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형성하였다. 젊은 날 그의 멘탈리티는 이후 이덕무의 문학적인 성장에 있어 그 방향성을 짐작하게끔 한다. 24세 이덕무의 일상적인 생각, 용에 대한 그의 경도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李德懋, 『靑莊館全書』, UC버클리대 아사미문고 소장.  
李睟光, 『芝峯先生集』, 韓國文集叢刊 卷66, 민족문화추진회.  
『大學·中庸』, 학민문화사, 1990.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청장관전서』 2, 숲, 1997.  
성백효 역주, 『대학·중용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17.

### 2. 논저

- 권정원, 「이덕무 문학의 형성배경에 대하여 -공안과 수용과 관련하여-」, 『대동한문학』 22, 대동한문화회, 2005, 395~437쪽.  
박문열, 「청장관 이덕무의 독서관」, 『인문과학논집』 7, 1988, 177~198쪽.  
박재휘, 「『중용』의 강합[強]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 『태동고전연구』 31,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3, 85~107쪽.  
서경요·김유곤, 『조선조 유학자의 중용읽기』, 문사철, 2009, 1~358쪽.  
심우섭, 『중용사상의 철학적 이해』,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1~328쪽.  
안병걸, 「17세기 조선조 유학의 경전 해석에 관한 연구 : “중용” 해석을 둘러싼 주자학과와 반주자적 해석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163쪽.  
엄연석, 「규장각 소장본을 통해 본 조선 중·후기 『중용』 연구 경향」,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67~93쪽.  
유권중, 「『입학도설』과 조선 유학 도설」, 『철학탐구』 21,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7, 5~39쪽.  
정 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 하버드 연칭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카 컬렉션』, 문학동네, 2014, 1~718쪽.  
정우봉, 「이덕무의 <관독일기>에 나타난 자아상」, 『어문논집』 74, 민족어문화회, 2015, 39~67쪽.  
\_\_\_\_\_, 『조선 후기의 일기문학』, 소명출판, 2016, 1~333쪽.  
한영우,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 경세원, 2007, 1~291쪽.

ABSTRACT

The meaning of *Zhongyong* reading in *Gwandok diary*

by Lee Deok-mu

—Focusing on the concept of Yong (勇)

Kang, Jin-s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meaning of the *Gwandok diary* (觀讀日記) by Lee, Deok-mu. Lee understands the contents of *Zhongyong* (中庸) based on the zhuzi (朱子)'s opinions. However, in the reading of *Jaromungang-jang* (子路問強章), the personal view of Lee about Yong (勇) is revealed. It was related to his personal history at the time. Lee was distressed by many problems caused by family issues and the frail mind and body. He hoped to get a firm spirit through reading the book. According to him, Yong helps the weaker to devote himself and to be strong. Through the *Gwandok diary*, it is possible to reconstruct the daily feeling of Lee Deok-mu as well as the acceptance of the *Zhongyong*. The *Gwandok diary* can be a fine chronology to look at the literary achievements of young Lee. There is the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24-years-old Lee's everyday thoughts, including his understanding of Yong.

**Key Words** Lee, Deok-mu, *Gwandok diary* (觀讀日記), Yong (勇), Gang (強), *Zhongyong* (中庸), Reading

논문투고일 : 2018.10.21  
심사완료일 : 2018.11.10  
게재확정일 : 2018.11.19